

Pope의 비평론에 나타난 'Nature'의 의미

윤 정 목

□ Basil Willey는 그의 *The Eighteenth-Century Background*(1940) 서문에서 Truth가 17세기에 있어서 중심어(key-word)의 역할을 한 데 비해서 18세기에 있어서는 Nature가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의도는 Wordsworth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자연의 신성화(Divinization of Nature)의 과정을 종교, 윤리, 철학 및 정치사상 등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있는 것이지만, 본 논문은 18세기의 대표적 시인인 Alexander Pope의 비평론에 있어서 Nature의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Nature의 개념은 S.H. Monk나 J. M. Cameron의 지적대로¹⁾ 그의 시에서의 wit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애매성을 갖고 있지만 그의 비평론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인 *An Essay on Criticism* (1711)의 분석 및 여러 비평가들의 해석을 통하여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Pope의 Nature를 대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보다 일상적인 의미의 Nature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things out there, or the outdoors'가 아니며 (Monk's footnote), 또한 단순한 'the material universe'도 아니다.²⁾ 인간의 외부에 별개의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사나운 힘을 행사하기도 하며 또한 기쁨과 위안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Nature에

1) Monk's footnote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Major Authors Edition, p.726) 및 Cameron, "Pope's use of Nature" in *Critics on Pope*, ed. Judith O'Neil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8), p.55

2) Geoffrey Tillotson, *Pope and Human Nature* (Oxford: Clarendon Press, 1958), P.V. 그는 이러한 의미로 그 개념이 쓰일 때는 small letter 'nature'로 표시함으로써 18세기 본래적인 의미의 capital letter 'Nature'와 구별한다.

대한 사랑과 예술작품으로의 표현은 18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외적인 현상이며, 그것은 Pope 이후에 가서 Thomson, Collins, Gray, Crabbe, Cowper 등의 시작에 의하여 더 눈에 띄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Nature의 개념을 이러한 의미로 볼 때, 18세기의 Nature에 대한 태도를 한 마디로 'indifference'로 보고 있는 Herbert Read의 견해는 수긍이 간다.³⁾ 이 점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자가 Myra Reynolds인데 그는 18세기에 있어 Nature를 다루는 태도의 특징을 10가지로 들고 있다.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것은 Nature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인한 'indifference'와 'artificiality'로 특징지워지는 것이며, 따라서 Nature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 및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similitudes'로서만 사용되고 그러한 'similitudes'도 아주 적은 양의 외부 자연현상으로부터 빌려와서 피상적으로 다루어 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ope의 Nature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앞에 얘기했듯이 그에게 있어서 Nature의 의미가 위의 의미와는 다른 때문이다.

[2]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Pope의 *An Essay on Criticism*은 문학비평원리에 관한 자기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18세기 영문학의 기본적인 경향을 밝혀주는 입문서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생각을 간결하고 기억하기 위한 귀절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비평원리에 대한 관심은 서구문학사에 있어서 멀리 Aristotle에 까지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K. Wimsatt, Jr.는 이 작품을 바로 Horace의 *Ars Poetica*의 전통에 속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⁵⁾ 문학이론 자체가 주제가 되는 이러한 독특한 양식의 작품을 Pope는 고대 이래의 여러 비평가들—Aristotle, Horace, Quintilian, Longinus, Boileau 등—로부터 그 소재를 빌려와 새로운 시작품으로 형식화한 것이다. 즉 그는 Horace가 *Ars Poetica*에

3) *Phases of English Poetry* (1928;rpt. London:Faber and Faber, 1948), pp. 98-113

4) *The Treatment of Nature in English Poetry*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9), p.57

5) William K. Wimsatt and Cleanth Brooks, *Literary Criticism:A Short History*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p.234

서, 그리고 Nicolas Boileau가 *L'Art Poétique*에서 그들의 시대를 대변하여 표현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 18세기를 대변하여 당시의 문학비평 원리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시화한 것이다. 그러면 그 비평원리는 무엇인가? Pope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 마디로 올바른 judgment를 갖는 일이다. 이것은 wit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wit가 인간정신의 독창적인 힘 즉 창조력(creative power)을 뜻한다면,⁶⁾ 그것은 그러한 독창적인 창조력을 절도있게 이끌어가는 힘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상적인 비평원리란 가끔 상충을 일으키기 쉬운('For wit and judgment often are at strife') 이 두 가지 요소의 원만한 조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얻기 힘든 것임에 틀림 없으며,

In poets as true genius is but rare,
True taste as seldom is the critic's share; (11-12)

많은 비평가들이 있긴하지만 올바른 judgment와 true taste를 갖춘 비평가란 드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비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신중을 취하는 일이다.

But you who seek to give and merit fame,
And justly bear a critic's noble name,
Be sure yourself and your own reach to know,
How far your genius, taste, and learning go;
Launch not beyond your depth, but be discreet,
And mark that point where sense and dullness meet. (46-51)

그러면 wit와 조화를 갖춘 올바른 judgment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Pope는 단호하게 이렇게 충고한다.

First follow Nature, and your judgment frame
By her just standard, which is still the same;
Unerring Nature, still divinely bright,
One clear, unchanged, and universal light,
Life, force, and beauty must to all impart,
At once the source, and end, and test of art. (68-73)

6) wit는 이 작품에서 창조력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임에 주의할 것. 강대건·송낙현 공역, 18세기 영시(서울: 탐구당, 1976), p.157 참조

이 부분은 이 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동시에 당연히 Pope의 비평론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의 Nature의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출발점인 동시에 결론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Pope의 시를 풀어 본다면, Nature는 judgment의 기준이 되며(just standard),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서(divinely light) 잘못이 없고(unerring) 항상 동일하며(still the same) 변함없이 밝게 온 누리를 비추는 하나의 빛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Nature가 보편성과 영원성을 갖는 개념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힘과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만물이 생성하고 활동하고 조화를 이루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Nature는 창조력의 근원이다. 동시에 예술의 근원이며 목적이고 시금석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 Nature가 만물의 창조를 모방한 제 2의 창조라 할 수 있는 예술창작의 근원과 목적이 되며 그 비평기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Nature가 얼마만큼 큰 비중의 의미를 갖는 개념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을 보자.

Art from that fund each just supply provides,
Works without show, and without pomp presides.
In some fair body thus the informing soul
With spirits feeds, with vigor fills the whole,
Each motion guides, and every nerve sustains;
Itself unseen, but in the effects remains. (74-79)

앞 두 행에서는 공금운영의 imagery를, 뒷부분에서는 인체의 imagery를 통하여 Nature의 의미 특히 art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㉓ 다음 부분(88-140)에 가면 이 Nature는 'ancient rules'와 동일한 것이 된다. 또한 그것은 Homer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Those rules of old discovered, not devised;
Are Nature still, but Nature methodized; (88-89)

But when to examine every part he came,
Nature and Homer were, he found, the same. (134-135)

Learn hence for ancient rules a just esteem;
To copy Nature is to copy them (139-140)

앞에서 우리는 Nature가 보편적이며 불변의 것으로서 만물과 예술의 근원임을 보았는 데, 그러한 Nature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Homer를 비롯한 고대의 대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작품은 Nature와 동일한 것이 되며 모든 시인들이 따라야 하는 rules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141-180)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Nature를 보게 된다. 왜냐 하면 위대한 예술에 있어서는 rules와 method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Some beauties yet no precepts can declare,
For there's a happiness as well as care.
Music resembles poetry, in each
Are nameless graces which no methods teach,
And which a master hand alone can reach
If, where the rules not far enough extend
(Since rules were made but to promote their end)
Some lucky license answer to the full
The intent proposed, that license is a rule.

Great wits sometimes may gloriously offend,
And rise to faults true critics dare not mend; (141-160)

여기에서는 rules 보다는 spontaneity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Nature는 Cameron의 말을 빌면 'a fountain of psychic energy'의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Pope가 이치럼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의미를 Nature를 사용한 것은 위대한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하나의 paradox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But the conflation of Nature as infinitely various and as predictably regular enables Pope to overcome what might otherwise be a destructive paradox⁷⁾

다시 말하면 wit와 judgment, rules와 spontaneity 등 위대한 예술작품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이 빚어내는 긴장을 이러한 Nature의 개념이 갖는 다양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7) Cameron, p.61

서 Berfrand A. Goldgar는 그의 *Literary Criticism of Alexander Pope*의 서문에서 neoclassical criticism이 'rigidity'와 'authoritarianism' 및 'rules'의 강조로 인하여 'original genius'와 'imagination'이 무시되는 결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neoclassical criticism이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쪽의 강조라기 보다는 창조적인 힘(genius, wit, spontaneity 등)과 억제하는 힘(judgment, rules 등)의 원만한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 타당한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시의 제 1부가 이러한 균형과 조화 속에 Nature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고대 대시인들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Hail, bards triumphant! born in happier days,
Immortal heirs of universal praise!
Whose honors with increase of ages grow,
As streams roll down, enlarging as they flow;
Nations unborn your mighty names shall sound,
And worlds applaud that must not yet be found! (189-194)

④ 이 작품은 더 2부와 3부로 계속되지만 Nature에 대한 중요한 언급은 1부에서 대개 끝나고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고찰은 여기에서 멈추고 방향을 돌려 몇몇 비평가들의 해석을 살펴 봄으로써 보충으로 삼고자 한다.

Tillotson은 Pope의 Nature의 개념에 대한 분석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쓸 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 그는 우선 Nature를 Primary Nature와 Secondary Nature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먼저 Primary Nature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보자.

I am aware of Pope as a poet who subscribed to the old belief that poets put as much human nature as possible into their poems, that they look to mankind—or Nature, as it was called in Pope's day—for their theme, or if not squarely to that, relate their narrower theme to it as closely as possible. Nature, when it was not human hands and feet, was, and of course is still, that quantum of the mind-and-heart which all men—past, present, and in theory future—hold in common⁸⁾

이 primary Nature가 모든 인간의 정신과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소유되

8) Tillotson, p.1

어 있는 것을 가르키는 반면에, secondary Nature는 그러한 보편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물론 primary Nature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믿을 만하고 심오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secondary Nature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But primary Nature, though the most reliable and perhaps the profoundest thing men find in their possession, is not a thing they are called on to be gazing at continually. A writer interested in talking of it as it is in itself the writer interested in recording imaginary actions prompted by it falls into a different category—cannot talk of it for long. And because of this restriction, he has recourse to secondary Nature... If primary Nature is what mankind 'knows', then secondary is what one section of mankind 'knows' and the rest 'knows of'.⁹⁾

*An Essay on Criticism*에서 Pope가 말하고 있는 Nature도 대부분 primary Nature도 대부분 primary Nature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또한 다음에 인용하고자 하는 개념도 그 primary Nature와 같은 것들이다.

...but most importantly that which is representative, universal, permanent in human experience as opposed to the idiosyncratic, the individual, the temporary.¹⁰⁾

...the universal and immutable in thought, feeling, and taste; what has always been known, what everyone can immediately understand and enjoy.¹¹⁾

Tillotso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Pope를 비롯한 18세기의 많은 시인들은 시의 가장 좋은 소재는 어느 한 개인의 특성이나 속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보편성을 갖는 문학작품만이 많은 수의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ope가 문학비평의 원리로서 Nature를 따르도록 단호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Tillotson의 말을 들어 보자.

9) *Ibid.*, p.118

10) Monk's footnote

11) A.O. Lovejoy, "Nature as Aesthetic Norm" Wimsatt and Brooks, p.318에서 재인용.

The typical eighteenth-century poet believed that men read poetry to discover—with the delight, of course, that poetry promises, as well as with profit—that they were like their fellows, or to remind themselves of themselves. That was their object in the first place, and only in the second to enlarge their curious sense of the sports and varieties possible for human nature as it existed amid all the accidentals that befringed the individual.¹²⁾

⑤ 그러면 이러한 Nature의 개념은 하나의 문학비평개념으로서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Aristotle의 *Poetics*가 시를 imitation으로 여기며 imitation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바로 이 Nature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Quintilian의 'Fix your eyes on Nature and follow her.'와 같은 충고나, Longinus가 Nature를 'test of the sublime'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Nature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비평사에서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예를 들면 Dryden과 Johnson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Dryden의 얘기를 들어 보자.

Thus I grant you that the knowledge of Nature was the original rule, and that all poets ought to study her, as well as Aristotle and Horace, her interpreters. But then this also undeniably follows, that those things which delight all ages must have been an imitation of Nature—which is all I contend.¹³⁾

다음은 Shakespeare에 대한 Johnson의 찬사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Shakespeare is, above all writers, at least above all modern writers, the poet of Nature, the poet that holds up to his readers a faithful mirror of manners and of life. His characters are not modified by the customs of particular places, unpracticed by the rest of the world... they are the genuine progeny of common humanity... His persons act and speak by the influence of those general passions and principles by which all minds are agitated and the whole system of life is continued in motion. In the writings of other poets a character is too often an individual: in those of Shakespeare

12) Tillotson, p. 9

13) John Dryden, "The Author's Apology for Heroic Poetry and Heroic License" in *The Norton Anthology* p.645

it is commonly a species.¹⁴⁾

결국 모든 위대한 문학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의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러한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개념인 Nature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도 자연히 그러한 Nature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미 있는 것은 특히 18세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의식되었다는 사실이다.

It is surely permanently true that a writer cannot dispense with Nature as material, and as guide to its use, since his writing addresses itself to as many readers as can be induced to gather round;... The special interest of Nature to students of English literature is that, especially in the eighteenth century, great and lesser literature was produced in conscious relation to it.¹⁵⁾

이와 같이 만민에게 공통된 보편적이고 영구한 질서로서의 Nature의 개념이 유달리 18세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Basil Willey의 지적대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⁶⁾

첫째는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과학의 발전이다. Copernicus, Kepler, Galileo, Bacon, Descartes, Newton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학의 발전은 우주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규정된 물리적인 인과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Nature로부터 모든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대신 질서와 법칙과 신의 섭리를 그곳에서 발견함으로써 Nature의 개념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둘째는 16세기와 17세기에 격렬했던 종교논쟁의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기독교 신앙이 격렬한 종교적 충돌에 의하여 흔들리게 됨으로써 그 신앙이 의존했던 계시(Revelation)는 점점 의미를 잃고 그 대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을 찾고자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Nature였고 인간 내부에 있어서는 이성(Reason)이었던 것이다. 신의 법칙은 Nature의 법칙이었고 그

14) Samuel Johnson, "The Preface to Shakespeare" in *The Norton Anthology*, p.884

15) Tillsötn, p.22

16) *The Eighteenth-Century Background*, pp.10-14

것이 곧 이성의 법칙이었다.

이 처럼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현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18세기가 Enlightenment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Enlightenment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 기본 뼈대가 이성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For in nearly all the provinces of thought in the Enlightenment the ruling assumption was that Reason —usually conceived as summed up in the knowledge of a few simple and self-evident truths—is the same in all men and equally possessed by all; that this common reason should be the guide of life;¹⁷⁾

물론 Lovejoy가 이 주목할 만한 저서에서 논하고 있듯이,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세계이며 합리성과 완전성을 갖고 있으며 질서와 통일 속에 존재하는 세계라는 사상은 Plato에서부터 시작되어 서구사상을 뒤흔들고 흘러온 것이기도 하다. 그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plenitude, continuity, gradation의 3원리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절대자(the Absolute)인 신의 창조물로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양성있게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chain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 가능한 것들이 각각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와 완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구조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기 마련이라는 논리가 가능하게 된다.¹⁸⁾

이러한 사상과 논리가 18세기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과 함께 이 시대 특유의 낙관주의(optimism)를 가져오고 보편적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로 귀착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Pope의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편적이면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문학비평개념으로서의 Nature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7) A.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p.288

18) 이러한 사상에 근거한 Pope의 우주관 및 인간관은 그의 또 하나의 대표작인 *An Essay on Man*에 잘 나타나 있다.